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 충청도 대학을 중심으로 -

전미영^{1*}, 이한우²

¹한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²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A Survey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Univers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Mi-Young Jeon^{1*}, Han-Woo Lee²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되어 후천적 장애로 인한 발생률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히, 대학생은 생애주기별 발달에 따라 성인이 초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다양한 대인관계와 확립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대학 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이념을 정립해 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에 진입하기 바로 전 시기인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부정적인 편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개선시킬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충청도지역 13곳의 대학교를 방문하여 무작위로 설문을 조사하여 총 250명의 설문 중 235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SPSS(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교육이 아닌 올바른 정보 및 지식, 인권, 장애, 다양성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의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주제어 : 장애인, 장애유형, 장애인 수, 인식교육, 장애인이해교육, 대학생

Abstract It is revealed that there are more registered disabled people in our country who have their disability because of acquired factors such as accidents than because of innate deformity. This phenomenon will continue and the incidence of acquired disability will increase more and more. Even though there is noticeable change, the social recognition toward the disabled is still negative. Particularly, university students are in the early adulthoo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life-cycle, and this is the period that people have diverse social relationships, depart from unified frame and work in various fields, and set up their own thoughts and ideology with knowledge and skills acquired from university edu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search the recogni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in the previous period of entering into the society, toward the disabled, and if they have negative prejudice or attitude against the disabled, we are going to find the ways to improve on their awareness positively.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randomly selected among 230 out of total 250 students by visiting thirteen univers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and were analyzed by using SPSS (ver. 18.0) program.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as analytical methods to look into the difference of analysis of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 reliability analysis and attitudes for comprehend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the survey. In conclusion, it has to be not a temporary or event-like training, but a training that makes people have positive recognition and attitude towards accurate information, knowledge, human rights, disability, and diversity. This thesis has a limitation to be generalized to the university students all over the country since the region is limited to a certain area.

Key Words : The disabled, Types of disability, The number of the disabled, Awareness training, The education of understanding the disabled, University student

1. 서론

현재 장애인 수는 2014년 4.9%로 약 24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 정도로 조사되었다[1,2]. 그러나 이것은 등록장애인 수만을 나타낸 것이다. 비등록인을 제외한 것이라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과 같이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 전체 장애인 수 249만 명에서 지체 장애인 수가 51.9%, 129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이 10.9%, 뇌병변장애인이 10.1%로 전체 장애인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1. Number of registered people

2014	
total	2,494(Thousands)
Retardation of disability	1,296
visual impairments	253
Hearing and speech disorders	271
Intellectual disorder	184
Brain lesion disorder	251
Autistic disorder	20
Psychopathy	97
Renal disorder	70
Cardiopathy	6
Respiratory disorders	12
Hepatopathy	10
Facial disorder	3
Intestinal fistula	14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질환으로 인한 발생률이 56%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후천적 사고 33%, 원인불명 5%, 선천적 원인 5%, 출생 시 원인 1%로 조사되었다[3]. 이렇게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랜 역사적 시간동안 장애인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인식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낮은 국민의식을 갖고 있다. 그것으로 장애인들의 인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회진입이 차단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4].

따라서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하는 문제이다. 가장 먼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로 인해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

고,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5]. 결국, 이것이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정책보다 장애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밑거름되어야 한다[5,6]. 인식전환 없이는 사회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편견 없는 사회통합만이 우리나라 성장의 미래가 될 것이다.

특히, 대학생은 생애주기별 발달에 따라 성인기 초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다양한 대인관계와 확립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대학 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이념을 정립해 가는 시기이다. 즉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만의 삶을 준비하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5,7].

이들은 이 기본 틀을 정립하는 준비기간을 거친 후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게 되는 신념, 태도에 따라 사회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의 전반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나갈 지금의 대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향후 장애인의 복지방향과 정책결정은 물론 사회통합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에 진입하기 바로 전 시기인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부정적인 편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개선시킬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정의

2.1 장애인 대학교 진학률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Table 2와 같이 2015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부 졸업생 7,111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이 57.5%, 특수학급 졸업생은 37.9%,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졸업생이 55.3%이며 전체 진학률은 47.0%를 보이고 있다[8].

2015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실시 대학은 전문대학 23개교와 4년제 대학교 98개교로 모두 121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전문대학 23개교 54명, 대학 98개교 753명으로 총

121개교 807명이다. 또한 2015년 7월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360명이며, 2015년도에 103명의 장애학생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다[8,9].

Table 2. Rate of entry to handicapped persons

		2015			
		total	Special school	Special class	General class
Graduates	Number of people	7,111	2,385	3,673	1,053
	(%)				
Entrants	Number of people	599	3,345	1,372	582
	(%)	47.0	57.5	37.9	55.3
-Majo	Number of people	2,212	1,250	914	48
	(%)	66.1	91.1	65.7	8.2
-junior college	Number of people	531	28	274	229
	(%)	15.9	2.0	19.7	39.3
-university	Number of people	602	94	203	305
	(%)	18.0	6.9	14.6	52.4

2.2 대학교의 장애인 인식교육 실태

우리나라 인식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한 기록은 찾기가 힘들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산업체와 장애인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있으나, 교육기관에서 특히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기록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마저 극히 일부이다[10]. 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대학교중 일반대학 20개교에서 전 학생 대상은 2개교, 교직원 대상은 13개교가 장애 관련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관련 필수 교육은 나사렛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단 2개교만 실시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사렛대학교가 ‘신학·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인 것을 감안하면, 장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대학은 서강대 단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장애 관련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관련 교육은 20개교 중 13개교가 교직원 대상의 장애 관련 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교육이 대부분 일 년에 한 번 이루어지고 학

교 행정직원이나 용역들로 대상이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장애학생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수업의 교수들에게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3 장애인에 대한 수용 태도

통합교육을 실시하면서 드러난 우리의 현실은 비장애학생이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요인들은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드러났다[11].

이에 관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요인들의 범위를 살펴보면, 비 장애학생의 성별, 연령, 지능지수, 장애 가족의 유무, 접촉 경험,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특이한 점은 통합교육을 통해 비 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물리적인 근접성을 이룬 것이 사회적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장애인을 분류하여 학급으로 구성한 경우, 일반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가 적다는 것이다. 아무런 사전교육 없이 형식적인 통합교육은 오히려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갖게 하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13]. 아무 준비 없이 무방비인 상태에 무조건 장애학생을 경험시키는 단순한 정책의 통합교육은 장애인을 그저 동정의 대상이나 무시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할 뿐이다.

3. 연구 방법

3.1 대상

연구의 대상은 충청도지역 13곳의 대학교를 방문하여 무작위로 설문을 조사하여 총 250명의 설문 중 235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107명(45.5%), 여성이 128명(54.5%)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았지만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표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이의 경우 10대가 73명(31.0%), 20대가 153명(65.1%), 30대, 40대, 50대가 각각 3명(1.3%)으로 10대와 20대의 비율이 30대, 40대, 50대에 비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 88명(37.4%), 2학년 127명(54.0%), 3학년 18명(7.7%), 4학년 2명(0.9%)으로 2학년이 가장 많았고, 1, 2학년에 비해 고학년인 3, 4학년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총 12개 학부로 어문학부 6명(2.6%), 사회복지학부 134명(57%), 법행정학부 12명(5.1%), 외식산업학부 13명(5.5%), 경상학부 9명(3.8%), 관광학부 9명(3.8%), 사범학부 6명(2.6%), 정보통신학부 5명(2.1%), 보건학부 27명(11.5%), 영상디자인학부 4명(1.7%), 스포츠과학부 2명(0.9%), 기독교학부 8명(3.4%)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학부가 134명으로 전체의 50%이상으로 나타났고 스포츠과학부가 2명으로 전체의 1% 이하로 나타나 학과간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f study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07	45.5
	Femal	128	54.5
Age	10's	73	31.0
	20's	153	65.1
	30's	3	1.3
	40's	3	1.3
	50's	3	1.3
Grade	1 Grade	88	37.4
	2 Grade	127	54.0
	3 Grade	18	7.7
	4 Grade	2	0.9
Major Department	Faculty of Linguistics	6	2.6
	Faculty of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12	5.1
	Faculty of Economics and Commerce	9	3.8
	Faculty of Education	6	2.6
	Faculty of Health Science	27	11.5
	Faculty of Sports Science	2	0.9
	Faculty of Social Welfare	134	57.0
	Faculty of Food Service Industry	13	5.5
	Faculty of Tourism	9	3.8
	Facul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5	2.1
	Faculty of Video Design	4	1.7
	Faculty of Christian Studies	8	3.4
Family disorders	Yes	33	14.0
	No	202	86.0
Friends disorders	Yes	36	15.3
	No	199	84.7

Conversation	Yes	197	83.8
	No	38	16.2
Event participation	Yes	110	46.8
	No	125	53.2
Presence of classes	Yes	166	61.3
	No	91	38.7
Volunteer activities	Yes	135	57.4
	No	100	42.6

가족 중 장애인 유무의 경우 있는 경우가 33명(14.0%), 없는 경우가 202명(86.0%)으로 장애가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친구 중 장애인 유무의 경우 있는 경우가 36명(15.3%), 없는 경우가 199명(84.7%)으로 가족 중 장애인 유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장애인과 대화 유무의 경우 있는 경우가 197명(83.8%), 없는 경우가 38명(16.2%)으로 대화를 해 본 대상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사 참석 유무의 경우 있는 경우가 110명(46.8%), 없는 경우가 125명(53.2%)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대상이 조금 더 많으나 그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관련 수업 및 강의 수강 유무의 경우 수강한 경우가 166명(61.3%), 수강하지 않은 경우가 91명(38.7%)으로 연구 대상은 장애인 관련 수업 및 강의를 비교적 많이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유무의 경우 있는 경우가 135명(57.4%), 없는 경우가 100명(42.6%)으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두 가지로 첫 번째 사용도구는 이종남(1994)이 번안한 DFS(Isability Factor Scales)를 박준성 외(2004)이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종남(1994)의 척도는 7가지 하위척도로 장애인에게 가지는 상호작용의 긴장, 접촉의 부재로 인한 친근감 결여, 사회 안에서의 일반화된 거부감, 본인의 권위주의적 성향, 추측에 의한 감정적 영향, 장애와 불행과의 동일시 장애인에게 전가되어 있는 기능적 한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완, 수정하여 무조건적인 거부, 왜곡된 동일 시, 추론된 정서장애,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친교의 거부, 접촉 시 긴장의 6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두 번째 도구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Antonak(1982)이 개발한 SADP and ATDP-O를 신은경

과 이한나(2011)가 타당화시킨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염세주의-고정관념’요인, ‘낙관주의-인권’요인, ‘손상된 성격’요인 등 3개의 하위요인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에 사용된 전체 도구에 대한 신뢰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첫 번째 도구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4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무조건적인 거부 .696으로 가장 낮고, 친교의 거부 .825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 도구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19로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염세주의-고정관념이 .918로 가장 높았고 낙관주의-인권이 .722, 손상된 성격이 .7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952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survey instrument

Factor		Item number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DFS	Unconditional denial	1, 7, 13, 19, 25, 31, 36	7	.696
	Distorted identification	2, 8, 14, 20, 26	5	.698
	Inferred emotional disorder	3, 9, 15, 21, 27, 32, 37	7	.802
	Restriction of other functions that are not damaged	4, 10, 16, 22, 28, 33	6	.730
	Refusal of friendship	5, 11, 17(역), 23, 29, 34	6	.825
	Tension at contact	6, 12, 18, 24, 30, 35(역)	6	.766
Total			37	.943
SADP and ATDP-O	Pessimism - stereotype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10	.918
	Optimism - human rights	48, 49, 50	3	.722
	Damaged personality	51, 52	2	.712
	Total			15
Total			52	.952

3.3 자료처리

본 연구는 SPSS(ver.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별, 학년, 전공계열, 장애인 가족 유무, 특수교육관련 강의 수강 경험 유무 및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 등 6개 변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무조건적인 거부, 왜곡된 동일 시, 추론된 정서장애,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요인, 친교의 거부, 접촉 시 긴장, 염세주의-고정관념, 낙관주의-인권, 손상된 성격)의 차이 분석 결과 및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성별

대학생의 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M=3.45, SD=.41)이 남성(M=3.43, SD=.55)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무조건적인 거부(M=3.57, 여성M=3.56), 왜곡된 동일시(M=3.48, 여성M=3.40), 추론된 정서장애(M=3.67, 여성M=3.58),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요인(M=3.51, 여성M=3.49), 손상된 성격(M=3.24, 여성M=3.22)에서 약간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친교의 거부(M=3.66, 남성M=3.59), 접촉 시 긴장(M=3.89, 남성M=3.75), 염세주의-고정관념(M=3.87, 남성M=3.77), 낙관주의-인권(M=2.34, 남성M=2.31)에서 약간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학년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술적 통계, F-test 및 Scheffe 사후검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차이는 1학년(M=3.53), 2학년(M=3.41), 3학년(M=3.33), 4학년(M=2.37)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952, p<.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 1학년과 2학년이 4학년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거부에서는 1학년(M=3.63), 2학년(M=3.56), 3학년(M=3.49), 4학년(M=1.86)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236, p<.00). 사후검증 결과 1학년, 2학년, 3학년이 4학년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왜곡된 동일시에서는 4학년(M=3.60), 1학년(M=3.53), 2학년(M=3.39), 3학년

(M=3.29)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사후검증 결과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론된 정서장애에서는 1학년(M=3.81), 2학년(M=3.54), 3학년(M=3.45), 4학년

Table 5. Difference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according to the gender

Classification		Unconditional denial			Distorted identification			Inferred emotional disorder		
		M	SD	t	M	SD	t	M	SD	t
Gender	Male	3.57	0.72	.219	3.48	0.75	.876	3.67	0.76	1.012
	Female	3.56	0.48		3.40	0.63		3.58	0.57	
Classification		Restriction of other functions that are not damaged			Refusal of friendship			Tension at contact		
		M	SD	t	M	SD	t	M	SD	t
Gender	Male	3.51	0.71	.167	3.59	0.81	-.774	3.75	0.70	-1.566
	Female	3.49	0.58		3.66	0.62		3.89	0.60	
Classification		Pessimism - stereotype			Optimism - human rights			Damaged personality		
		M	SD	t	M	SD	t	M	SD	t
Gender	Male	3.77	0.84	-1.065	2.31	0.87	-.287	3.24	0.89	.182
	Female	3.87	0.64		2.34	0.74		3.22	0.81	
Classification		전체								
Gender	Male	3.43			.55			-216		
	Female	3.45			.41					

Table 6. Difference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according to the grade

Classification		Unconditional denial				Distorted identification				Inferred emotional disorder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Grade	1 ^a	3.63	.56	6.236***	a,b,c > d	3.53	.68	1.076		3.81	.57	7.160***	a > b > d		
	2 ^b	3.56	.55			3.39	.68			3.54	.65				
	3 ^c	3.49	.84			3.29	.83			3.45	.84				
	4 ^d	1.86	.00			3.60	.00			2.14	.00				
Classification		Restriction of other functions that are not damaged				Refusal of friendship				Tension at contact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Grade	1 ^a	3.59	.57	4.157**		3.68	.63	5.580**	a,b > d	3.93	.63	8.305***	a,b,c > d		
	2 ^b	3.48	.64			3.63	.70			3.77	.60				
	3 ^c	3.32	.84			3.59	.92			3.93	.75				
	4 ^d	2.17	.00			1.67	.00			1.83	.00				
Classification		Pessimism - stereotype				Optimism - human rights				Damaged personality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M	SD	F	Scheffe		
Grade	1 ^a	3.94	.75	7.398***	a,b,c > d	2.26	.84	.976		3.36	.91	3.834*	a > c		
	2 ^b	3.79	.65			2.34	.79			3.22	.79				
	3 ^c	3.77	.94			2.50	.70			2.64	.66				
	4 ^d	1.60	.00			3.00	.00			3.50	.00				
Classification		Total													
Grade	1 ^a	3.53				.43				4.952**				ab > d	
	2 ^b	3.41				.47									
	3 ^c	3.33				.60									
	4 ^d	2.37				.00									

*** p < .00, ** p < .01, * p < .05

(M=2.14)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7.160, p<.00). 사후검증 결과 1학년이 2학년보다, 2학년이 4학년보다 긍정적이라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요인에서는 1학년(M=3.59), 2학년(M=3.48), 3학년(M=3.32), 4학년(M=2.17)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157, p<.01), 사후검증 결과 1학년

과 2학년이 4학년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유의미하였다(p<.05). 친교의 거부에서는 1학년(M=3.68), 2학년(M=3.63), 3학년(3.59), 4학년(M=1.67)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5.560, p<.01). 사후검증 결과 1학년, 2학년, 3학년이 4학년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00). 접촉 시 긴장에서는 1학년, 3학년(M=3.93), 2학년(M=3.77), 4학년(M=1.83)의 순

Table 7. Difference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according to the Major department

Classification		Unconditional denial			Distorted identification			Inferred emotional disorder			Pessimism - stereotype			Optimism - human rights			Damaged personality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ajor Department	Linguistics a	2.86	.72	5.589***	2.70	.58	4.127***	2.95	.63	3.590***	3.17	1.32	5.027***	2.44	.75	1.767	2.00	1.55	3.383***
	Social Welfare b	3.57	.51		3.43	.60		3.61	.56		3.87	.63		2.31	.86	3.32	.74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c	3.14	.68		3.10	.55		3.31	.85		2.95	.90		2.50	.52	2.75	.66		
	Food Service Industry d	3.90	.63		3.80	.74		3.99	.59		4.30	.45		1.85	.78	3.69	.38		
	Economics and Commerce e	3.76	.39		3.49	.35		4.14	.34		4.07	.74		2.41	.94	3.33	.97		
	Tourism f	3.46	.55		3.53	.55		3.73	.51		3.70	.54		2.63	.39	3.00	.66		
	Education g	3.98	.14		3.83	.95		4.05	.22		3.98	.72		2.61	.90	3.33	.7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	3.86	.00		4.08	.30		3.80	.73		4.12	.41		1.87	.84	3.20	1.25		
	Health Science i	3.67	.67		3.67	.87		3.66	.95		4.02	.77		2.12	.56	3.19	.97		
	Video Design j	2.79	.58		2.50	.12		3.00	.49		2.70	.46		3.00	.38	4.00	1.15		
	Sports k	1.86	.00		2.00	.00		2.14	.00		2.60	.00		3.33	.00	2.00	.00		
Christians studies l	3.93	.54	3.25	.77	3.57	.49	3.91	.70	2.71	.72	2.75	.65							
Scheffe		d,g,i,l < k			-			-			d,i > c			-					
Classification		Restriction of other functions that are not damaged			Refusal of friendship			Tension at contact			Total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ajor Department	Linguistics a	2.72	.47	4.004***	2.64	1.08	6.203***	3.22	.99	2.693***	2.74			.70			5.166***		
	Social Welfare b	3.57	.58		3.68	.59		3.84	.61		3.47			.39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c	3.03	.51		2.94	.66		3.36	.76		3.01			.44					
	Food Service Industry d	3.77	.50		3.78	.58		3.85	.49		3.66			.46					
	Economics and Commerce e	3.81	.54		3.94	.50		4.07	.28		3.67			.20					
	Tourism f	3.56	.32		3.74	.30		3.93	.51		3.48			.35					
	Education g	3.64	.22		4.33	.32		4.17	.37		3.77			.1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	3.50	.31		3.73	.52		3.60	.09		3.53			.34					
	Health Science i	3.47	.89		3.78	.94		4.06	.84		3.52			.68					
	Video Design j	2.58	.29		2.58	.48		3.17	.19		2.92			.35					
	Sports k	2.17	.00		1.83	.00		2.83	.00		2.31			.00					
Christians studies l	3.56	.72	3.69	.50	3.88	.48	3.47			.26									
Scheffe		-			g > a,k			-			-								

*** p < .00, ** p < .01

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8.305, p<.00$). 사후검증 결과 1학년, 2학년, 3학년이 4학년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00$).

염세주의-고정관념에서는 1학년($M=3.94$), 2학년($M=3.79$), 3학년($M=3.77$), 4학년($M=1.60$)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7.398, p<.00$), 사후검증 결과 1학년, 2학년, 3학년이 4학년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00$). 낙관주의-인권에서는 4학년($M=3.00$), 3학년($M=2.50$), 2학년($M=2.34$), 1학년($M=2.26$)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976$). 손상된 성격에서는 4학년($M=3.50$), 1학년($M=3.36$), 2학년($M=3.22$), 3학년($M=2.64$)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F=3.834, p<.05$), 사후검증 결과 1학년이 3학년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p<.05$).

4.3 전공계열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술적 통계, F-test 및 Scheffe 사후검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대학생의 전공계열의 차이는 사범($M=3.77$), 경상($M=3.67$), 외식산업($M=3.66$), 정보통신($M=2.37$), 보건($M=3.52$), 관광($M=3.48$), 사회복지·기독교($M=3.47$), 법행정($M=3.01$), 영상디자인($M=2.92$), 어문($M=2.74$), 스포츠과학($M=2.31$)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5.166, p<.00$). 그러나 Scheffe 사후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적인 거부에서는 사범($M=3.98$), 기독교($M=3.93$), 외식산업($M=3.90$), 정보통신($M=3.86$), 경상($M=3.76$), 보건($M=3.67$), 사회복지($M=3.57$), 관광($M=3.46$), 법행정($M=3.14$), 어문($M=2.86$), 영상디자인($M=2.79$), 스포츠과학($M=1.86$)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5.589, p<.00$).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외식산업, 사범, 보건, 기독교가 스포츠과학부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왜곡된 동일시에서는 정보통신($M=4.08$), 사범($M=3.83$), 외식산업($M=3.80$), 보건($M=3.67$), 관광($M=3.53$), 경상($M=3.49$), 사회복지($M=3.43$), 기독교

($M=3.25$), 법행정($M=3.10$), 어문($M=2.70$), 영상디자인($M=2.50$), 스포츠과학($M=2.00$)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4.127, p<.00$).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된 정서장애에서는 경상($M=4.14$), 사범($M=4.05$), 외식산업($M=3.99$), 정보통신($M=3.80$), 관광($M=3.73$), 보건($M=3.66$), 사회복지($M=3.61$), 기독교($M=3.57$), 법행정($M=3.31$), 영상디자인($M=3.00$), 어문($M=2.95$), 스포츠과학($M=2.14$)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F=3.590, p<.00$),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을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요인에서는 경상($M=3.81$), 외식산업($M=3.77$), 사범($M=3.64$), 사회복지($M=3.57$), 관광·기독교($M=3.56$), 정보통신($M=3.50$), 법행정($M=3.03$), 어문($M=2.72$), 영상디자인($M=2.58$), 스포츠과학($M=2.17$)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F=4.004, p<.00$), 사후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교의 거부에서는 사범($M=4.33$), 경상($M=3.94$), 외식산업·보건($M=3.78$), 관광($M=3.74$), 정보통신($M=3.73$), 기독교($M=3.69$), 사회복지($M=3.68$), 법행정($M=2.94$), 어문($M=2.64$), 영상디자인($M=2.58$), 스포츠과학($M=1.83$)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6.203, p<.00$). 사후검증 결과 사범이 어문과 스포츠과학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접촉 시 긴장에서는 사범($M=4.17$), 경상($M=4.07$), 보건($M=4.06$), 관광($M=3.93$), 기독교($M=3.88$), 외식산업($M=3.85$), 사회복지($M=3.84$), 정보통신($M=3.60$), 법행정($M=3.36$), 어문($M=3.22$), 영상디자인($M=3.17$), 스포츠과학($M=2.83$)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693, p<.01$).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세주의-고정관념에서는 외식산업($M=4.30$), 정보통신($M=4.12$), 경상($M=4.07$), 보건($M=4.02$), 사범($M=3.98$), 기독교($M=3.91$), 사회복지($M=3.87$), 관광($M=3.70$), 어문($M=3.17$), 법행정($M=2.95$), 영상디자인($M=2.70$), 스포츠과학($M=2.60$)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027, p<.00$). 사후검

증 결과 외식산업과 보건이 범행정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낙관주의-인권에서는 스포츠과학($M=3.33$), 영상디자인($M=3.00$), 기독교($M=2.71$), 관광($M=2.63$), 사범($M=2.61$), 범행정($M=2.50$), 어문($M=2.44$), 경상($M=2.41$), 사회복지($M=2.31$), 보건($M=2.12$), 정보통신($M=1.87$), 외식산업($M=1.85$)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767$).

Table 8. Difference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disabled family member

Classification	Unconditional denial			Distorted identification			Inferred emotional disorder			
	M	SD	t	M	SD	t	M	SD	t	
Disabled Family Member	Yes	3.48	.67	-1.704	3.25	.69	3.63	.72	-.484	
	No	3.58	.59		3.47	.69		3.63		.65
Classification	Restriction of other functions that are not damaged			Refusal of friendship			Tension at contact			
	M	SD	t	M	SD	t	M	SD	t	
Disabled Family Member	Yes	3.53	.83	.404	3.69	.88	3.83	.77	-.258	
	No	3.49	.61		3.62	.68		3.83		.63
Classification	Pessimism - stereotype			Optimism - human rights			Damaged personality			
	M	SD	t	M	SD	t	M	SD	t	
Disabled Family Member	Yes	3.75	.97	-.924	2.44	.80	3.28	1.06	-2.168	
	No	3.84	.70		2.31	.80		3.28		.79
Classification	Total									
	M			SD			t			
Disabled Family Member	Yes	3.38			.61			-.604		
	No	3.45			.45					

* $p < .05$

사후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된 성격에서는 영상디자인($M=4.00$), 외식산업($M=3.69$), 경상·사범($M=3.33$), 사회복지($M=3.32$), 정보통신($M=3.20$), 보건($M=3.19$), 관광($M=3.00$), 범행정·기독교($M=2.75$), 어문·스포츠과학($M=2.00$)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383$, $p < .00$).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장애인 가족 유무

대학생의 장애인 가족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

도의 기술적 통계,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체 대학생의 장애인 가족 유무에 따른 차이는 장애인 가족 없음($M=3.45$)이 있음($M=3.38$)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t=-.604$). 무조건적인 거부에서는 없음($M=3.58$)이 있음($M=3.48$)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791$). 왜곡된 동일시에서는 없음이($M=3.47$), 있음($M=3.25$)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704$). 추론된 정서장애에서는 없음($M=3.63$)이 있음($M=3.57$)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484$).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요인에서는 있음($M=3.53$)이 없음($M=3.49$)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t=.306$), 친교의 거부에서는 있음($M=3.69$)이 없음($M=3.62$)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404$). 접촉 시 긴장에서는 없음($M=3.83$)이 있음($M=3.79$)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484$).

염세주의-고정관념에서는 없음이($M=3.84$)이 있음($M=3.75$)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608$). 낙관주의-인권에서는 있음($M=2.44$)이 없음($M=2.31$)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924$). 손상된 성격에서는 없음($M=3.28$)이 있음($M=2.94$)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168$, $p < .05$).

4.5 특수교육 관련 강의 수강 유무

대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강의 수강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술적 통계,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대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강의 수강 유무에 따른 차이는 있음($M=3.45$)이 없음($M=3.43$)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366$).

무조건적인 거부에서는 있음($M=3.58$)이 없음($M=3.53$)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630$). 왜곡된 동일시에서는 없음($M=3.52$)이 있음($M=3.39$)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488$). 추론된 정서장애에서는 있음($M=3.63$)이 없음($M=3.61$)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246$).

Table 9. Difference of attitudes according to the attendance to lecture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lassification		Unconditional denial			Distorted identification			Inferred emotional disorder		
		M	SD	t	M	SD	t	M	SD	t
Lecture Attendance	Yes	3.58	.51	.630	3.39	0.61	-1.488	3.63	.60	.246
	No	3.53	.72		3.52	0.79		3.61	.75	
Classification		Restriction of other functions that are not damaged			Refusal of friendship			Tension at contact		
		M	SD	t	M	SD	t	M	SD	t
Lecture Attendance	Yes	3.51	.58	.425	3.62	.60	-1.199	3.88	.58	1.434
	No	3.48	.73		3.64	.86		3.74	.74	
Classification		Pessimism - stereotype			Optimism - human rights			Damaged personality		
		M	SD	t	M	SD	t	M	SD	t
Lecture Attendance	Yes	3.83	.64	-.022	2.38	.77	1.243	3.23	.78	-.060
	No	3.83	.88		2.24	.84		3.24	.93	
Classification		Total								
		M			SD			t		
Lecture Attendance	Yes	3.45			.40			.366		
	No	3.43			.58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요인에서는 있음(M=3.51)이 없음(M=3.48)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425). 친교의 거부에서는 없음(M=3.64)이 있음(M=3.62)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99). 접촉 시 긴장에서는 있음(M=3.88)이 없음(M=3.74)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434).

염세주의-고정관념에서는 있음(M=3.83)과 없음(M=3.83)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22). 낙관주의-인권에서는 있음(M=2.38)이 없음(M=2.24)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243). 손상된 성격에서는 없음(M=3.24)이 있음(M=3.23)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60).

4.6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술적 통계,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있음(M=3.48)이 없음(M=3.39)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503).

무조건적인 거부에서는 있음(M=3.62)이 없음(M=3.49)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553). 왜곡된 동일시에서는 있음(M=3.49)이 없음(M=3.37)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252). 추론된 정서장애에서는 있음(M=3.69)이 없음(M=3.53)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771).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요인에서는 있음(M=3.54)이 없음(M=3.44)보다 긍정적이었으나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272). 친교의 거부에서는 있음(M=3.70)이 없음(M=3.54)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697). 접촉 시 긴장에서는 있음(M=3.91)이 없음(M=3.71)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481, p<.05).

염세주의-고정관념에서는 있음(M=3.93)이 없음(M=3.69)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517, p<.05). 낙관주의-인권에서는 있음(M=2.35)이 있음(M=2.31)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361). 손상된 성격에서는 없음(3.36)이 있음(3.14)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10. Difference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of volunteer activities

Classification		Unconditional denial			Distorted identification			Inferred emotional disorder		
		M	SD	t	M	SD	t	M	SD	t
Volunteer Activities	Yes	3.62	0.59	1.553	3.49	0.69	1.252	3.69	0.66	1.771
	No	3.49	0.60		3.37	0.68		3.53	0.65	
Classification		Restriction of other functions that are not damaged			Refusal of friendship			Tension at contact		
		M	SD	t	M	SD	t	M	SD	t
Volunteer Activities	Yes	3.54	0.63	1.272	3.70	0.71	1.697	3.91	0.67	2.481*
	No	3.44	0.65		3.54	0.71		3.71	0.61	
Classification		Pessimism - stereotype			Optimism - human rights			Damaged personality		
		M	SD	t	M	SD	t	M	SD	t
Volunteer Activities	Yes	3.93	0.74	2.517	2.31	0.81	-.361	3.14	0.86	-2.037
	No	3.69	0.72		2.35	0.79		3.36	0.81	
Classification		Total								
		M			SD			t		
Volunteer Activities	Yes	3.48			.48			1.503		
	No	3.39			.47					

* p < .05

4.7 전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전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기술적 통계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보통 수준(M=3.44)인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태도의 하위 요인별 태도는 염세주의-고정관념(M=3.83), 접촉 시 긴장(M=3.83), 친교의 거부(M=3.63), 추론된 정서장애(M=3.62), 무조건적인 거부(M=3.56),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 요인(M=3.50), 왜곡된 동일시(M=3.44), 손상된 성격(M=3.23), 낙관주의-인권(M=2.32)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of all college students

Unconditional denial		Distorted identification		Inferred emotional disorder	
M	SD	M	SD	M	SD
3.56	.60	3.44	.69	3.62	.66
Restriction of other functions that are not damaged		Refusal of friendship		Tension at contact	
M	SD	M	SD	M	SD
3.50	.64	3.63	.71	3.82	.65
Pessimism - stereotype		Optimism - human rights		Damaged personality	
M	SD	M	SD	M	SD
3.83	.74	2.32	.80	3.23	.84
Total		M		SD	
		3.44		.48	

5. 결과 및 제언

현재 우리사회는 선천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장애인들과의 통합을 위해 장애인식 개선교육도 점차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성별의 따른 장애인인식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족 유무의 경우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손상된 성격’에 대한 영역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1학년보다 2학년이, 2학년보다 3학년이, 3학년보다 4학년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행사참여 유무에 따른 인식 조사는 수강 학생 수는 많았으나, 하위영역 결과

는 부정적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전공계열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 장애인특강(교과목 수업), 장애인과의 대화, 행사참여가 가장 많은 사회복지, 기독교, 스포츠과학계열의 학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타 학과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행사로 진행되고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학점을 위한 목적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강여부와 행사참여의 학생 수가 많아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교육 없이 물리적인 통합을 진행한다면 서로의 이해 부족으로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비 장애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더욱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깊어질 수 있다[14].

행사 참여의 경우 프로그램 조사에서 사회복지계열과 스포츠과학계열 외에는 단체 행사나 이벤트 형식의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전공과목으로 선택이 되어 강의를 수강한 학생조차도 인식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대학의 장애인식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현재 아무런 이해교육 없이 진행되고 있는 행사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해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계속적으로 다양해지는 장애의 유형에 대한 더 나은 교육방법(시청각 자료, 장애 유형별 이해교육, 장애인의 특성관련 교육 자료, 교육 대상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학과별 특성에 맞는 자료)을 개발해 교재의 다양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모든 자료가 공유되고, 다양한 생각들이 교류하여 많은 자료들이 개발이 되어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겠다[14].

내용 면에서도 장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보 및 지식, 인권, 장애, 다양성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다[15].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인식조사에서 ‘낙관주의-인권’부분의 하위영역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된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인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장애인과 적절한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맺는데 장애요인

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해 교육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장애인인식에 대한 바른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해 나아가 하겠다.

그리고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과목의 경우 학점을 받기 위한 교과서 중심, 지식전달의 교육, 취업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대학 교육체계에서는 다양한 교육의 실사가 어려운 상황이다[16,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사전, 사후 인식을 비교하여 변화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식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통합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를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직원 대상의 장애 관련 교육을 행정직원에게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교수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 교육자의 이념과 사상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에 전체 교수 대상의 장애인 인식교육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지금 현재 현행법에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한 조항을 첨부하여 교육기관이 반드시 지키게 하고 학교 평가기준에도 적용하여 강제성을 띄어야 하겠다. 또한 그 중요성도 지금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식의 변화로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받아들이며 지역사회 안으로 편입하려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태도의 견지를 통해 장애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REFERENCES

- [1] Statistics Office. (2015).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Seoul : Statistics Office.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Guide to Welfare Activ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Surve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4] M. S. Gwon & J. H. Lee. (2014).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Person of the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6), 3667-3674.
- [5] M. J. Kim. (2012). *A Research on Non-Special Education Majors' Attitud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Kongjo National University, Kongju.
- [6] H. S. Lee. (2011). *A Study on Attitude about Disabled Colleges Students by Non-disabled Focusing on Evaluation of Educational Welfare Support System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 [7] K. H. Kim. (2006). A study of Student Attitudes toward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Region Busan and Gyungnam. *Special education research*, 13(1), 27-48.
- [8] KEDI. (2017). *Innovators of Education for Korea and Globla Community*. KEDI. www. kedi.re.kr
- [9] Korea Employment Service Corporation. (2015). *Statistics of Disability*. Seoul : Korea Employment Service Corporation.
- [10]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 *Janrminews*. RI Korea. www.freeget.net
- [11] J. H. Han. (2008). *Non-Handicapped Students' Acceptant Attitude toward Handicapped Students in Accordance with Integrated Education*. University of Seoul, Seoul.
- [12] Y. S. Lee. (1995). *A Study on the Attitudes of the Students' Attitudes toward Mentally Reductive Students*. Daegu National University, Daegu.
- [13] Y. Y. Kim.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the Non-Disabled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ccording as Presence or Absence of Experiences of Integrated Education*. Daegu University, Daegu.
- [14] J. M. Kim & S. J. Song. (2008). The Effect of Factors on the University Students Acceptive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eory and Practice of Special Educational Journals*, 9(1), 83-99.
- [15] G. H. Lee. (2011).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 Volunteer Activities on the Recognition of Disabled Persons*. Jeonju National University, Jeonju.
- [16] L. C. Kim, J. H. Han & J. S. Park. (2005). A Study on the Attitude of Attitude to the Disabled and the Positive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ical Arts*, 146-147.
- [17] E. Park. (2005). *A Study on the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 with Mental Disorders*. Keimyung University, Daegu.

저 자 소 개

전 미 영(Mi-Young Jeon)

[정회원]



- 2014년 2월 : 한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 학사
- 2015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 박사과정
- 2004년 1월 ~ 현재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근무

<관심분야> : 정보통신, 중소기업, 융합

이 한 우(Han-Woo Lee)

[정회원]



- 1993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학사
- 2012년 7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박사과정 수료
- 2015년 1월 ~ 현재 : 천안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

<관심분야> : 정보통신, 중소기업, 융합